

번호 16-5

제 목	국 문	흡연과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			
	영 문	The Associated of Smoking with Cardiovascular Risk Factors	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이강숙, 홍현숙,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
	영 문	Lee Kang-Sook, Hong Hyun-Sook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			
분 야	보건관리 ()	발 표 자	일반회원 (○)	발표 형식	구 연 (○)
	역 학 (○)		전 공 의 ()		포스터 ()
환 경 ()				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○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흡연은 많은 역학연구에서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추고, 총콜레스테롤,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, 혈당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,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3배의 관상동맥질환을 보이며 이로 인한 사망률도 70%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특히 혈중지질 및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양-반응 관계(dose-response relationship)를 보인다고 보고되었으며, 금연시 2주-4주 내에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상승한다고 하였다.</p> <p>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자에서의 높은 흡연율과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사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근경색,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금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본 연구의 대상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1994년에서 1998년까지 종합건강 진단을 받은 직업을 가진 남자 28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본 대상자들에서 흡연자가 1,711명, 과거흡연자가 495명, 비흡연자가 682명이었으며, 연령,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, 체질량지수, 혈중 총 콜레스테롤,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, 혈당, 중성지방을 조사하였고,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계산하였다. 비흡연자와 과거흡연자를 금연자로 하여 흡연자의 흡연량(1-10개피, 11-20개피, 21-30개피, 30개피 이상)에 따라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로 연령 및 체질량지수를 조정하여 Odds ratio를 구하였다.</p>					

3. 연구결과

혈중 콜레스테롤이 240 mg/dl 이상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21-30개피가 2.06(1.44-2.94), 31개피 이상이 2.03(1.31-3.11)이었으며,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40 mg/dl이하의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1-20개피가 1.76(1.34-2.33), 21-30개피가 1.98(1.39-2.81), 31개피 이상이 2.35(1.54-3.54)이었고,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60mg/dl이상의 높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21-30개피가 2.06(1.43-2.98), 31개피 이상이 2.25(1.45-3.45), 중성지방이 200mg/dl이상인 높은 중성지방은 11-20개피가 1.93(1.47-2.55), 21-30개피가 2.57(1.82-3.62), 31개피 이상이 2.80(1.86-4.21)이었으며, 혈당이 120mg/dl 이상은 31개피 이상의 흡연자가 1.98(1.30-3.45)이었다.

4. 고찰

본 연구를 통하여 흡연은 관상동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총 콜레스테롤,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혈당의 상승 및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본 연구결과 흡연과 이들 위험요인의 양-반응관계(dose-response relationship)를 보여주어 심혈관 질환예방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.